

충북지역 특산품, 청풍명계가 농가 살린다



▲ 충북지역 양계농가의 소득 극대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이준동 지회장

충북지역 양계농가 권익 보호를 위해 지회 창립

충북지역은 충주, 음성, 청주, 보은 대한양계 협회 육계지부가 중심이 되어 양계농가의 화합과 권익을 보호하여 왔다.

2003년 12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출하길이 막히고, 2004년 3월 충청지역에 집중된 폭

설로 인해 대부분의 육계사가 무너져 생산기반을 잃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폭설 피해 농가들의 재기를 위한 현실적인 정부 지원을 요구한 결과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은 일정규모 이상(양계 2,700m²)의 전업농 농가에 혜택이 없는 것에 다시 한번 좌절할 수 밖에 없었다. 불평등 폭설 피해 정책에 항의하는 보은육계지부 안효두 지부장의 끝없는 투쟁이 효시가 되어 충북지역 농가들은 하나로 뭉치게 되었고, 이러한 단합된 힘이 대한양계협회 충북도지회를 설립하자는 공감대가 마련되었다.

이로써 지난 4월 15일에는 충북지역 양계농가 120명을 비롯하여 이원중 충북도지사, 최준구 양계협회 중앙회장 등 관련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농업기술원에서 충북도지회 창립 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이준동 지회장은 충북도지회 설립으로 농가 경영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회원 역량 배가를 위해 현재 육계 및 채란 회원농가는 250명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각종 도·시·군 보조금 확보

도지회는 소속 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우

선 충청북도와 시군에 농가를 도울 수 있는 있는 보조금을 유치하였다.

예를 들어 2005년 한해 충청북도에서 농가 소득보전 자금 10억과 기계설비 자금으로 3억 5천만원, 농업기술원 컨설팅 자금으로 1억 5천만원, 청원군에서 방역 시설자금 3억 5천만원을 지원 받은 바 있다.

또한 2004년부터 산·학·연·농 클러스터(충북축산연구소, 충북농업기술원, 충청북도, 고려대, 네오바이오) 사업으로 추진하는 바이오 친환경 사업을 신청하여 도에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도내 양계농가 참여하에 추진하고 있다.

바이오 친환경 육성 특화 사업 실시

충북도지회 토종닭농가들은 일반 닭과의 차별화 없이는 시장 경쟁력이 없다는 점을 깊이 깨달아 지난해 12월 19명의 회원이 참여해 무항생제 닭을 사육하는 충북 바이오 축산영농조합을 설립하게 되었고, 현재는 50여명의 회원이 가입한 상태이다.

동 조합 브랜드는 “청풍명계”로 현재 농협 하나로 마트, 까르푸에 1일 500~1,000수를 납품중이고, 시장 반응을 보아가며 1일 3,000~5,000수까지 늘려가며 일본 수출을 타진하고 있다.

청풍명계는 OEM 사료에 마늘과 감초한방 보조사료를 첨가하여 생산한다. 한방사료보조제는 마늘과 함께 닭의 항병력 및 면역력 증진하는데 사용한다. 특히 해부를 통하여 입증되었지만 튼튼한 장을 만들어줌으로써 많은 효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청풍명계 닭고기의 특징은 기름기가 적고 비린내가 나지 않는 반면 풍미가 뛰어날 뿐 아니라 육



▲ 청풍명계 충청북도지정특화사업으로 자리잡는데 한몫을 하고 있는 이준동 지회장(중), 김선태 상무(우), 최윤희 대리(좌)

질도 탄탄해(콜레스테롤이 수치가 20% 적고, 알리신 4배 성분이 증가, 지방 40% 감소) 일반 토종닭보다 훨씬 높은 고가가격으로 유통하고 있다는 것인데 소비자가 가격은 1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바이오 친환경 사업을 도내 많은 농가가 참여하도록 현재 토종닭에 그치지 않고, 닭고기·계란 브랜드를 3개씩 신규 제작하여 사업영역을 육계, 계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축산물 타운 건립 추진

이준동 지회장은 향후 충북 지역의 양계농가 뿐만 아니라 소 및 돼지농가들의 축산물의 안정적인 유통을 위하여 무항생제 소·돼지·닭 컨소시엄 구성 별도 축산물 브랜드를 만들어 축산물 브랜드전에 참가하여 소비자에게 알리고 이를 발판으로 삼아 축산물 타운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는 농가만을 생각하는 자세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다.

이준동 지회장은 어렵게 재설립된 충북도지회인 만큼 소속 회원들과 함께 국내 양계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내고자하는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취재 | 김중준 과장)